

관계부처 합동		보도자료	<div>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div> <div>보다 나은 정부</div>
국민 제감 적극행정			
작성과	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	담당자	과장 윤미경(044-201-8060) 사무관 조윤정(044-201-8052)
	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		과장 김성조(02-2100-2750) 사무관 조대성(02-2100-2752)
보도일시	2019년 7월 25일(목) 배포 후 즉시		

금융위원회 대변인에 여성 민간전문가 최초 임용

- 서정아 前 머니투데이 부국장,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 -

- 금융위원회 대변인(국장급)에 여성 민간전문가가 최초로 임용됐다.
 - 인사혁신처(처장 황서종)와 금융위원회(위원장 최종구)는 서정아 前 머니투데이 통합뉴스룸1부 부국장(50세)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금융위원회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.
 - 이는 금융위원회의 첫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사례이기도 하다.
-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조사,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로 지난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8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.
 -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각 부처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 지원 방식이다.
- 금융위원회 대변인은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뉴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- 서정아 대변인은 약 26년간 언론사에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를 수행해 왔으며,
 - 온라인 콘텐츠, 모바일, 포털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IT와 미디어를 융합한 뉴미디어 홍보 영역을 구축해온 언론인이다.
 - 경제부, 재테크부, 자본시장팀 등 금융·경제 전반에 대한 취재 경험이 있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정책홍보 추진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이다.
-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민 및 언론과의 소통이 중시되고 온라인 홍보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온·오프라인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서정아 대변인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.
- 서정아 대변인은 “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,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각종 현안·이슈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관리해 나가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- 최관섭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은 “정부헤드헌팅을 통해 각 부처 주요 직위에 민간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온 우수한 전문가들이 잇달아 임용되고 있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며,
 - “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낼 민간인재가 공직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헤드헌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- 금융위원회는 “금융위원회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용되고 최근 본부에 여성 과장이 3명으로 확충되는 등 여성인재의 발굴 및 기용에 앞장서고 있다”며,
 - “앞으로도 조직내·외의 적극적인 인재 발굴과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**대변인 주요 업무**

구분	주요 내용
주요 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·조정 및 협의·지원 ○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기획·조정·지원 ○ 보도계획 수립, 보도자료 작성·배포 관련 사항 ○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 동향 분석 및 대응 ○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·협조 ○ 브리핑실 운영 등 그 밖에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

□ **서정아 대변인 약력**

- 성명 : 서정아(1968년생)
- 학력 : 서울대 외교학 학사
- 경력
 - 2018. 6.~2018.11.: 싸이월드 부사장(뉴스Q 미디어본부장)
 - 2017. 1.~2017. 7.: 머니투데이 통합뉴스룸1부 부장(부국장 대우)
 - 2016. 1.~2017. 1.: 머니투데이 편집국 정치부장 겸 더300 에디터
 - 2015. 4.~2016. 1.: 머니투데이 편집국 경제부장
 - 2010.10.~2014.12.: 머니투데이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유닛장
 - 2010. 2.~2010.10.: 머니투데이 편집국 뉴미디어부 부장
 - 2006. 1.~2010. 2.: 머니투데이 채테크부 부장
 - 2000. 1.~2001. 1.: 머니투데이 자본시장팀 기자
 - 1991. 6.~2000. 1.: 서울신문 사회·정치·문화·국제부 기자